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원산지, 호주의, 라벨, 표시, 재료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원산지, 호주의, 라벨, 표시, 재료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6. 8.
호주 식품업계, 원산지
표시제 개정 요구

2016. 1. 22.
원산지 표시제 개정예
대한 의견 수렴

2016. 3. 30.
원산지 표시제 개정안,
호주 연방 정부 승인

2016. 7. 1.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
최초 도입

핵심이슈
도출

“호주 식품표준청, 원산지 표시제 개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호주 식품표준청(FSANZ), 원산지 표시제 개정

2016년 7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개정한 새로운 식품영양표시 라벨이 호주에 도입된다. 새로운 라벨은 ‘재배’와 ‘생산’, ‘제조’, ‘포장’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호주산 재료의 비율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바뀔 예정이다.

가공식품과 같은 포장식품에서부터 신선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해당되는 비포장식품까지 모두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단, 식당이나 즉석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식품은 적용이 제외된다.

그 동안 호주에서는 ‘made in’과 ‘product of’ 등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용되고 있고, 소비자들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 표준청(FSANZ)에서는 표기 방식을 지정하였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Grown in Australia – 호주에서 100% 재배된 식품
- Made in Australia – 호주에서 주로 가공 처리된 식품
- Product of Australia – 호주산 재료로 호주에서 가공된 식품
- Packed in Australia – 호주에서 포장된 제품
- Product of (country name) – 외국산 제품

총 6가지의 라벨을 디자인하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호주를 대표하는 캥거루 그림과 함께 막대그래프 차트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채택,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한편, 새로운 원산지 표시제는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2018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호주로의 식품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개정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숙지하고, 제품 포장 시에 라벨에 주의하여야 한다. 호주의 경우 수입식품에 대해 엄격한 통관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원산지 표시제 개정으로 인해 호주산 재료 사용 비율이 강조되면서 자국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호주에서 수입식품의 피해가 예상된다.

호주 원산지 표시제 규정은 호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oodlabels.industry.gov.au/>)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